

Part 3 — Q&A

3월 2주차 Q&A — 유동성 회복기 자산 상승 순서 & 2028 글로벌 지능 위기 시나리오

· 정리 2026-05-15

유동성 회복기 자산 순서 + 2028 글로벌 지능 위기

Part 3-1강 직후 Q&A (2026-03-09). 두 질문에 강사가 응답한 회차 — ① 베센트 5~10월 유동성 살포 시 자산 순서 ② 시트리니 리서치 2028 글로벌 지능 위기 보고서.

강사 결론은 단순하다 —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AI에 대체되지 말고 AI를 소유해야 한다. 2028 이전이 자본 형성의 결정적 시점.

AI 파트는 한 달로 다룰 계획이었으나 시트리니 보고서로 시장이 출렁이면서 긴급 다룬다. 두 질문이 사실은 한 메시지로 통합된다 — 시차와 변동성 안에서 자본가 입장으로 자산을 모은다.

\$285B

2026-02-24 Black Tuesday — S&P Software Index 1일 -13%, \$285B 시총 증발 (+2). 신생 업체 Citrini Research 보고서로 닷컴 트라우마 자극

{'text': '베센트 살포 + 이란 전쟁 + 2028 AI 위기 — 세 변수 안에서 한국 투자자는 어떻게 자본가가 되는가?'}

1. 유동성 회복기 + 2028 글로벌 지능 위기

Part 3-1강 직후 Q&A (2026-03-09). 두 질문에 강사가 응답한 회차다.

질문 1 (노래하는 사자님): 5월부터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유동성을 확대하면 자산 가격은 어떤 순서로 오를까? **질문 2 (이제시작TJ님):** 2028 글로벌 지능 위기 시트리니 리서치 보고서 분석 및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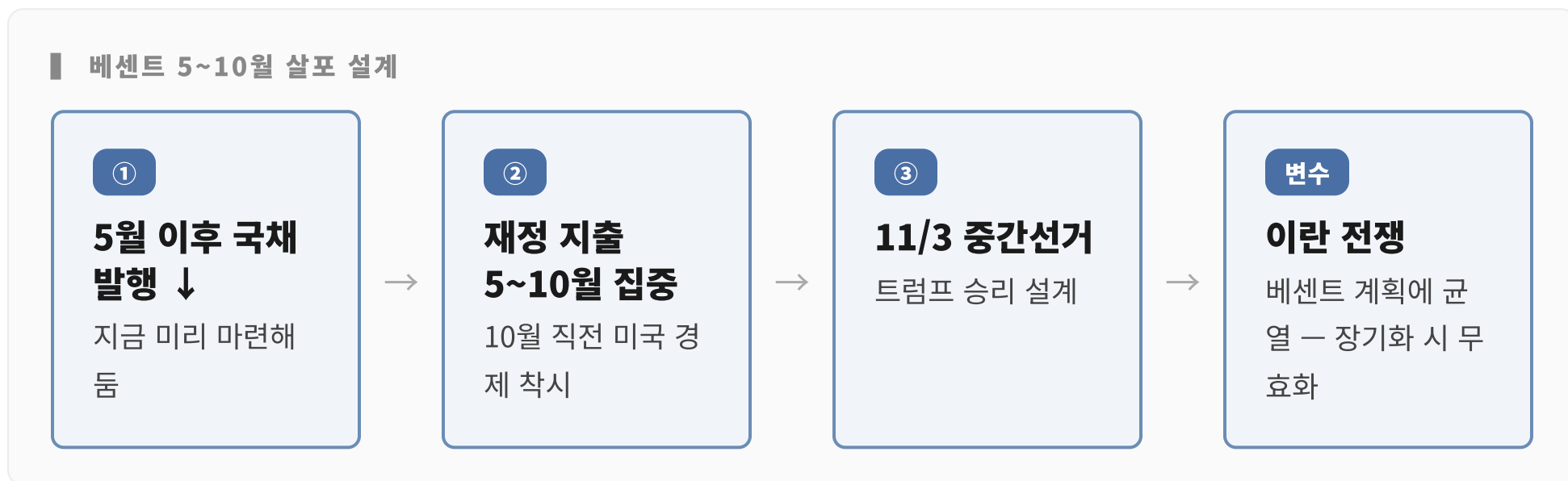
AI 파트는 한 달로 다룰 계획이었으나 시장이 시트리니 보고서로 출렁이면서 긴급 다룬다. 두 질문이 사실은 한 메시지로 통합된다 — 시차와 변동성 안에서 자본가 입장으로 자산을 모은다.

2. 베센트 5~10월 살포 — 11/3 중간선거 설계

정치권 재정 지출 패턴 — 어느 나라나 똑같다. 선거가 상반기에 있을 때 재정 지출을 상반기에 몰아 쓴다. 진보·보수와 무관. 1년 세출은 정해져 있으니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지만, 언제 쓰느냐는 정권 재량.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계획은 **11/3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승리를 돕기 위한 치밀한 설계다**. ① 5월 이후 국채 발행 ↓ (지금 미리 마련해 둬) ② 재정 지출 5~10월 사이 집중 → 10월 직전까지 미국 경제 좋아 보이는 착시 ③ 1년 세출 고정 → 지금의 지출은 줄여 놔서 주가 비실비실.

이 멋진 계획에 균열을 가져온 것이 **이란 전쟁**이다. 트럼프가 정치적 궁지(엡스타인 사건 +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 몰리자, 베센트의 계획을 무시하고 이란을 침공했다. 이게 본 회차 두 질문이 사실은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다.



3. 이란 전쟁 — 게임 체인저

전쟁 장기화 → 유가 급등 → 인플레이션 발생. 근원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안 떨어졌으나 에너지 가격이 싼기에 미국 인플레가 잡힌 듯 착시였다. 유가가 오르면 신선 식품도 에너지로 생산·유통되니 물가 전체가 올라간다.

호르무즈 해협 마비(봉쇄 X)는 가능하다. 이란이 봉쇄할 힘은 없지만, '지나가는 유조선은 몽땅 불태우겠다'고 경고만 해도 마비 가능. 선사가 유조선 한 척 잃어도 데미지가 너무 커서 못 지나간다.

미국 보호 능력 — 미국 구축함은 사실상 **6척만 가용**. 다 수리 중인데 드라이독이 없어 수리 안 됨 (미국 조선 산업 붕괴). 그중 2척은 홍해, 최대 4척이 호르무즈. 유조선 하루 수백 척 지나가는데 4척으로 전부 보호 불가. 트럼프의 '미국이 보험 들어줄 거야'는 가짜라는 걸 누구나 안다. 장기화 시 유가 **120~150달러**.

강의 후 2개월 흐름 (+1) — **2026-04-08 첫 ceasefire** 후 5월 escalation 반복. **Brent 5월 초 \$114.44** (Project Freedom 발표 직전) → 5월 8일 \$101.29 안정. **호르무즈 2,000 vessels에 20,000 seafarers stranded**. 강사 '구축함 6척만 가용' 명제 정확 검증.

■ 이란 전쟁 — 미국 보호 능력

항목	수치	함의
가용 구축함	6척만	드라이독 X 수리 못 함
호르무즈 배치 가능	4척	유조선 하루 수백 척 대비
장기화 시 유가	120~150달러	강사 예측 (현재 \$101~114)
호르무즈 stranded	2,000 vessels	20,000 seafarers (+1)

†1 이란 전쟁 ceasefire 깨졌다 다시 + Brent \$101~114 cnbc.com

4. 자산 시나리오 — 단기 종료 vs 장기화

강사 제시 두 갈래 시나리오. **전쟁 단기 종료 (4주 내)** — 베센트 계획 그대로 발동. 5월 TGA 풀림 → 유동성 확대 → 자산 순서 **비트코인** → **주식** → **금** 순 상승.

전쟁 장기화 — 전쟁이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 **달러 인덱스** 첫날 ↑ (안전 자산 매수) → 진행되면 ↓ (천문학 재정 지출 우려). **금** 0 (상승) — 달러 가치 녹아나기 분명. **미국 국채 금리** 상승 — 부채 ↑ 추가 발행 시장에서 못 사줌. **비트코인** △ — 미국에 종속된 로컬 자산화. **주식** X (약세) — 금리 + 물가 상승 모두 악재.

특히 흥미로운 점은 **금값과 금리 동행** — 일반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같이 오른다. 이유는 미국 국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 빚으로 전쟁 하면 더 많은 국채 발행 → 금리 ↑ → 금도 동시에 ↑.

■ 자산 시나리오 두 갈래

자산	단기 종료	장기화
비트코인	1순위 ↑	△ (로컬 자산화)
주식	2순위 ↑	X (약세)
금	3순위 ↑	0 (달러 녹음)
국채 금리	안정	↑ (재정 우려)
달러 인덱스	안정	첫날 ↑ → 진행 시 ↓

5. 시트리니 보고서 = 2028 시나리오 + Black Tuesday

2월 23일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신생 업체**의 보고서로 AI 관련 공포 투매가 발생했다. 신생 업체 보고서 하나로 AI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닷컴 트라우마의 깊이를 보여준다.

정확한 사건 정량 (+2) — Citrini Research가 2026-02-22 발표. **2026-02-24 'Black Tuesday' — S&P Software Index 1일 -13%, \$285B 시총 증발**. IBM 약 -13%. X 16M views, **Michael Burry 인용 'And you think I'm bearish'**.

시나리오 — 2028 6월 가정 메모 (실업률 10.2%, S&P -38%, 인도 IT 서비스 계약 취소, 루피 4개월 -18%). 한국에는 충격이 없었다. 1998 IMF 외환위기 때 닷컴 버블을 사실상 경험 못 했기 때문. 그래서 한국 증권맨에게는 닷컴 공포가 없고 'AI에 무슨 버블이야, HBM 계속 가' 식의 왜곡된 보고서가 많다. 강사 본인은 당시 경제부 기자로 보도해 충격이 너무 생생하다.

Black Tuesday — 1일 충격

S&P Software Index 1일		** -13% **
\$285B 시총 증발		\$285B

신생 업체 보고서 = 닷컴 트라우마 자극

6. 확정 vs 미확정 시나리오 7 항목

강사가 시트리니 보고서 7 항목을 두 그룹으로 분류한다.

확정 — AI가 인터넷·스마트폰처럼 필수화 / 기업 소프트웨어 대체 / 컨설팅 줄도산 / 사무직 대량 감원. **미확정** — 스테이블코인 결제 폭발 / 카드사·은행 몰락 / 2028 대형 금융 위기.

시트리니 보고서는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다. 우리는 미래를 완벽 예측 못 한다. 1980년대 '2000년 하늘 나는 자동차' 예측은 빗나갔고 대신 IT와 AI가 먼저 왔다.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

확정 4 항목이 핵심이다. 다음 § 부터 각 항목의 구체 메커니즘 — 기업 SW 대체와 사무직 감원 — 을 정밀하게 본다.

이 7 항목 분류는 본 회차 분석의 출발점이며, 강사가 시트리니 보고서를 무조건 수용하지도 무조건 반박하지도 않는 균형 시각을 보여준다. 핵심은 — 확정 4 항목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본가 결론의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 시트리니 보고서 — 확정 vs 미확정

항목	강사 판단
AI 필수화 (인터넷·스마트폰 처럼)	확정
기업 소프트웨어 대체	확정
스테이블코인 결제 폭발	미확정
카드사·은행 몰락	미확정
컨설팅 줄도산	확정
사무직 대량 감원	확정
2028 대형 금융 위기	미확정

7. 기업 SW 대체 — MS ID당 과금 모델 변형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기업 SW는 **ID당 과금**으로 떼돈 번다. 그런데 AI 시대엔 기업이 **AI ID 하나로 모든 처리 가능** — 영상 창출·편집·ERP·경영 모두. ID당 과금 모델 붕괴 가능성.

강사 전망 —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체는 딱 3개만 남을 것**. 한국 소프트웨어 업체는 싹 다 망할 수도 있다.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 온다.

정확 정량 후속 (+4) — Microsoft 365 Copilot Enterprise **\$30/user/month**, Business \$18~21. **2026-05-01 새 번들 출시** — Microsoft 365 E7 'Frontier Suite' **\$99/user/month** (E5 + Copilot + Entra Suite + Agent 365). 단순 Office ID당 모델은 유지하되 AI는 추가 과금 → 단가 사실상 3배 인상. 강사 명제 '붕괴 가능성'은 부분 진행 — 붕괴 X, 모델 변형 O. ID당 모델 유지하면서 AI 번들로 단가 인상하는 방어 전략. 강사 '3개만 남는다' 미래 전망의 1차 신호.

이 모델 변형은 강사가 짚은 '소프트웨어 업체 3개만 남는다'는 미래 전망의 1차 신호다. MS는 단가 인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통할지는 미지수. AI 자체의 빠른 발전이 ID당 모델 전반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한국 SW 업체는 그 변화의 흐름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강사 진단이 본 § 의 결론이다.

결국 본 회차의 시사점은 — MS도 ID당 모델을 단순히 포기하지 못하고 AI 추가로 단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방어진다는 점. 진짜 붕괴는 다른 형식의 SW 시장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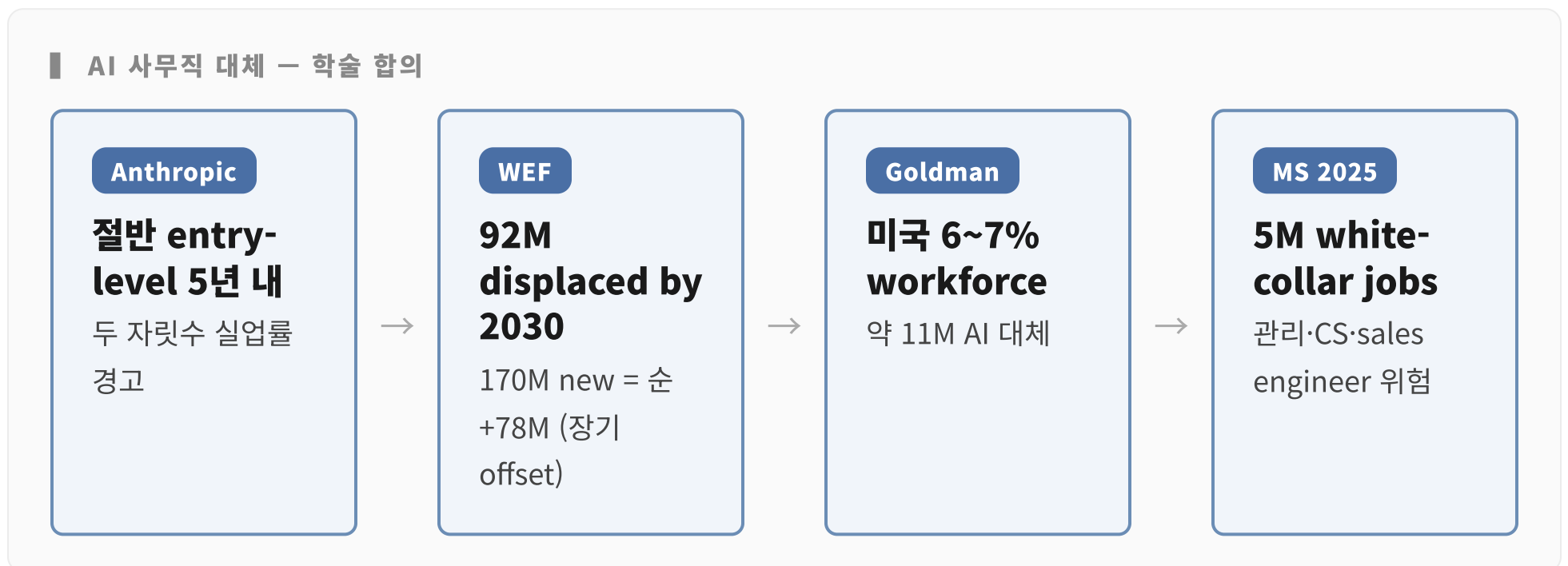
†4 MS Copilot Enterprise \$30~99 번들 출시 — ID당 모델 변형 진행 microsoft.com

8. 사무직 대량 감원 — 회계사·법무사·의사

강사 분류 — 사무직 + 회계사·법무사·변호사 = 큰 타격. 의사 — 처방전 단순 업무는 빠른 대체. 한국은 면허로 보호되지만 미국은 보험사 권력으로 보호 X. 미국 먼저 → 한국에 시장 개방 압박 (트럼프 4.0~5.0 시대, 4~5년 뒤).

외부 학술 보강 (+3) — WEF: 92M displaced by 2030, 170M new = 순 +78M (장기 offset 시사). Goldman Sachs: 미국 6~7% workforce (~11M) AI 대체. Microsoft 2025: 5M white-collar jobs 위험. Anthropic CEO Dario Amodei: entry-level white-collar 절반이 5년 내 사라질 수 있음 + 두 자릿수 실업률 경고.

2026 Q1 미국 기술 layoffs 45,000건 중 20%가 AI 명시. McKinsey: 32% 기업이 1년 내 3%+ 인력 감축 예상. 강사 명제가 학술 합의로 정확 검증.



9. AI 대체 국가 속도 — 한국 2위

가장 분명한 미래 모습 — **GDP는 성장해도 대중은 궁핍해진다.** 기업이 돈 왕창 벌고 사람을 다 잘라버리면 소비 줄어들고 경제 위축. 기계보다 비싼 인건비 직장 = 먼저 파괴됨.

강사 분류 국가 순위 — 1위 **미국** (혁신 중심지 + 해고 자유), 2위 **한국** (IT 적응 잘함, AI로 대체 쉬움). 느린 나라들 — 일본(팩스 + 전통), 대만(TSMC 외 가내 수공업), 유럽(한 땀 한 땀 명품 + 관광, 혁신 늦은 게 역설적 보호), 동남아·자원 부국(비정형 노동 + AI·로보틱스 수요 증가로 자원 가격 ↑).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빠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시트리니 보고서에 안 나온 가장 중요한 부분.
한국 투자자가 가장 주목해야 할 시각이다 — 미국이 위험하면 한국은 그 다음으로 위험.

AI 대체 국가 속도 순위

순위	국가	이유
1위	미국	혁신 중심지 + 해고 자유
2위	한국	IT 적응 잘함, AI 대체 쉬움
느림	일본·대만·유럽	전통 보존, 명품·관광
느림	동남아·자원 부국	비정형 노동 + 자원 가격 ↑

10. 비정형 노동 = AI 어려움

배관공을 AI로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 정형화된 일은 AI 가능하나 배관공은 집마다 배관이 달라 비정형. 자원 채굴도 비정형.

이게 동남아·자원 부국이 AI 대체 속도가 느린 이유다. 정형 노동(사무직·코딩·회계)은 빠르게 대체되지만, 비정형 노동(배관·자원 채굴·돌봄)은 AI가 한계.

역설적 — AI 시대에 사무직보다 비정형 육체 노동이 더 안전할 수 있다. 단순히 '학력 ↑ = 안전'이 아니라 '비정형 정도 = 안전'으로 보호 기준이 이동한다. 한국 청년 세대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이유 — 한국은 IT 적응 빠른 2위 국가인데, 청년 세대는 정형 사무직 위주로 진입하기 때문.

이 비정형 차이가 다음 § 자본가 결론의 출발점이다 — AI 대체되지 않는 능력은 비정형 노동이지만, 자본가 입장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다.

이게 동남아·자원 부국이 AI 대체 속도가 느린 이유와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이다. 정형 노동(사무직·코딩·회계)은 빠르게 대체되지만, 비정형 노동(배관·자원 채굴·돌봄)은 AI가 한계.

역설적 — AI 시대에 사무직보다 비정형 육체 노동이 더 안전할 수 있다. 단순히 '학력 ↑ = 안전'이 아니라 '비정형 정도 = 안전'으로 보호 기준이 이동한다. 한국 청년 세대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이유 — 한국은 IT 적응 빠른 2위 국가인데, 청년 세대는 정형 사무직 위주로 진입하기 때문.

이 비정형 차이가 다음 § 자본가 결론의 출발점이다. AI 대체되지 않는 능력은 비정형 노동이지만, 자본가 입장은 그것보다 더 위의 시각이다. 자본가는 AI 자체를 소유함으로써 비정형/정형 차이 위에 위치한다.

11. 자본가가 되어라 — AI 소유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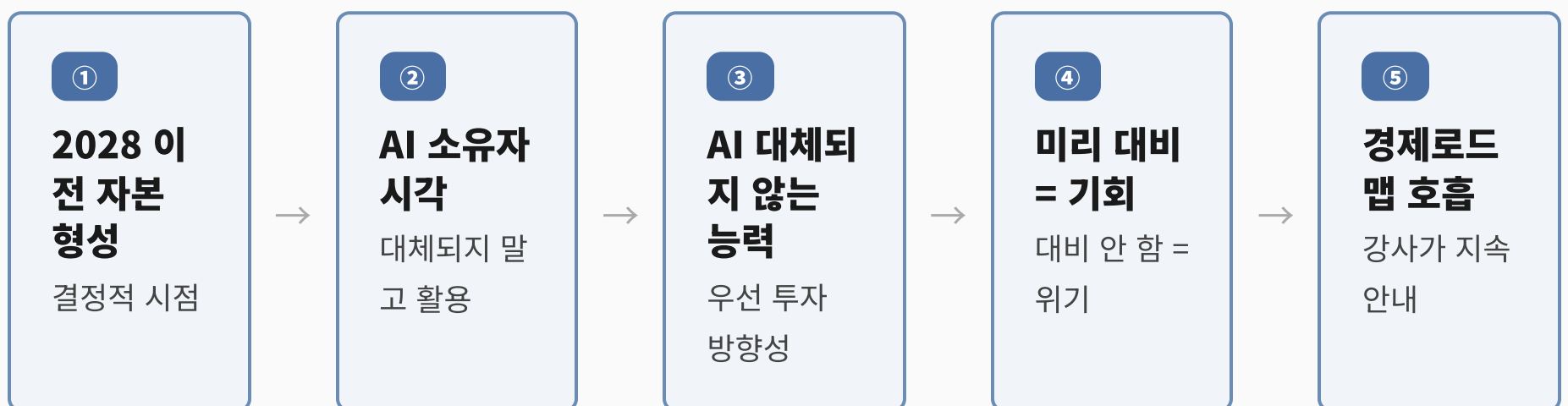
AI 시대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원칙 —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AI에 대체되지 말고 AI를 소유해야 한다. AI에 의해 파괴되는 자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파괴하는 자 — AI 기업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박종훈의 경제로드맵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 ① 자본 형성 시점 — 2028 이전 상당 부분. ② 스스로 AI에 대체되지 않는 능력 — 우선 투자 방향성, 그 다음 도태되지 않는 방법. ③ 미리 대비 = 기회 / 대비 안 함 = 위기.

경제로드맵은 바로 대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 앞으로 호흡하면서 AI 시대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강사 마무리.

강사가 본 회차 두 질문을 통합해 도출한 결론이다. 자산 시나리오와 AI 위기 모두 한 흐름의 변수들이고, 그 흐름의 결론이 자본가 결론으로 수렴한다.

■ 자본가 결론 — 5 단계 (강사 명시)



12. 마무리 — 2028 이전 준비 + 다음 회차 예고

본 회차 두 질문이 사실 한 메시지로 통합된다 — **시차와 변동성 안에서 자본가 입장으로 자산을 모은다.** 베센트 살포·이란 전쟁·시트리니 보고서 모두 한 흐름 안의 변수들이고, 그 흐름의 결론은 자본가 결론.

다음 Q&A 회차들에서 베센트 단기채 정책·자산 시나리오·AI 변수가 더 정밀하게 다뤄질 예정. Part 3 본강의도 계속 진행되며 너울/파도/물보라 골격이 시리즈 누적된다.

강사 결론은 단순하다 — **자본가가 되어라.** AI 대체되지 말고 AI를 소유해라. 2028 이전이 결정적 시점. 미리 대비 = 기회, 대비 안 함 = 위기.

자본가가 되어라

Part 3-1강 직후 Q&A. 두 질문에 강사가 응답하면서 한 흐름의 결론을 도출한다 — 베센트 살포 · 이란 전쟁 · 시트리니 보고서 모두 한 흐름의 변수들이고, 그 흐름의 결론은 자본가 결론.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AI에 대체되지 말고 AI를 소유해야 한다. 2028 이전이 결정적 자본 형성 시점.

강사 마무리 — 경제로드맵은 바로 준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 앞으로 호흡하면서 AI 시대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

자본가가 되어라 — AI에 대체되지 말고 AI를 소유해야 한다. 2028 이전 자본 형성이 결정적 시점.

다음 Q&A

베센트 단기채 + 자산 시나리오 + AI 변수 정밀화

Part 3 시리즈와 평행하게 Q&A에서 베센트 단기채 정책 · 자산 시나리오 · AI 변수가 더 정밀하게 다뤄질 예정.

```
{'title': '출처 및 면책', 'paragraphs': ['본 자료는 박종훈의 지식한방 Q&A 3월 2주차 (2026-03-09)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강의의 핵심 논지와 관련 지표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요약입니다.', '+ N 외부 자료는 강의 메시지에 새로운 시각을 추가할 뿐 권고 항목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

지표 출처: cncb.com · aljazeera.com · citriniresearch.com · stocktwits.com · aimultiple.com · investorplace.com · microsoft.com